

언제까지나 변함없는 국립공원을 위하여

오랜 세월에 걸쳐 형성되어온 게라마 제도 국립공원의 모습, 찾아온 사람을
매료시키는, 바다와 육지가 일체가 된 독특한 ‘게라마 블루의 세계’가 언제까지나
변함없이 존재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지켜나갑시다.